

재난·재해 관리체계 고도화

선제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KR은 지진, 폭염, 폭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안전한 철도현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제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도록 IT기반의 재난예방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oT*를 활용한 철도 주요구조물상 이상 징후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난 우려 개소를 실시간 감시하는 지능형 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원격 영상 관리시스템 운영(101개 현장, 292개소)을 확대하여 현장에 대한 24시간

[재난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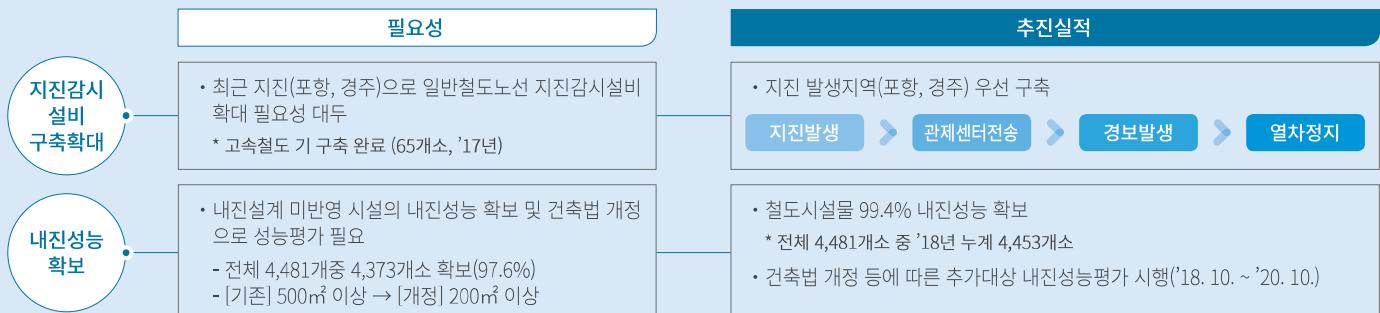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 인프라 강화

KR은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피해 여파 최소화를 위하여 대응 시스템 및 전담 조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LTE-R*(철도통합무선망)을 기반으로 한 영상통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차 내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 단절 없이 실시간 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한파 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재난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고하여 재난 상황실 내 인력을 증원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국토부, 행정안전부, 소방서, 지자체, 철도공사 등 주요 9개 기관)를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시행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LTE-R(LTE based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한 국산 시스템으로, 열차·관제센터·유지 보수자·운영기관·정부기관 간에 정보를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주고받아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철도무선통신시스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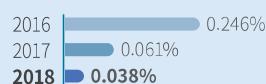
[지진 대비 철도시설물 구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전 고속철도 구간에 재난방송 수신설비를 설치(2018년 경부고속철도 설치)하여 3년 연속 달성 중인 “자연재난 사고의 ZERO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

[환산 재해율]



- '18년 고용노동부 재해율 발표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저 수준 재해율(0.44%) 달성

* '18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해율 평균 : 1.09%

- 공단 창립('04) 이래 최저 환산재해율(0.038%) 달성

* 환산재해율=(환산재해자수×100/상시근로자수)의 평점×0.5

재난·재해에 대비한 철도시설물 안전성능 제고

KR은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속철도에만 설치된 지진감시 설비를 포함, 경주를 비롯한 지진발생 지역의 일반철도 노선까지 설치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지반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18년 12월 철도설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서울역 등 전국 14개 복합민자역사의 화재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진단하여 이용객의 피난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점검개선사항 733건을 개선조치하고, 홈페이지에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여 대국민 철도시설 안전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